#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

노 영 주(우석대 산학협력교수) · 이 승 미(우석대 교수)

## Ⅰ. 들어가는 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저출산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 화두로 등장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방향이나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할 때 '맞벌이부부의 증가'를 주요 변화현상으로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남성생계부양자 1인소득자가구모델에서 2인소득자가구모델로의 전환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가족의 돌봄기능 약화 또는 돌봄공백문제를 신사회위험으로 규정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향과 방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와 정책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에서 가정하는 '맞벌이부부모델'은 다음과 같은 함의를 갖고 있다.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을 하는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직업몰입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일중심 생활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중심 생활패턴으로 인한 일-가정갈등 심화는 출산지연, 취업중단, 출산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맞벌이부부에게는 경제적 자원에 비해 시간자원이 현저히 부족하므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가정이 깔려 있는 것이다.

한편 한국사회의 맞벌이가족 현황을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2분기 지역별고용조사 결과를 이용한 맞벌이가구 통계자료(통계청, 2011)에 따르면, 2011년 6월 현재 유배우 1,162만 가구 중 43.6%인 507만 가구가 맞벌이가구이며 42.3%인 491만 가구가 홑벌이가구이다. 맞벌이가구와 홑벌이가구 비율이 비슷하다. 이 통계자료에서는 취업자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이 있는 일시휴직자로 정의하였다. 가구주를 기준으로 하여 맞벌이가구에서는 임금근로자가 57.3%이고 비임금근로자가 42.7%이며, 홑벌이가구에서는 임금근로자가 73.3%이고 비임금근로자가 26.7%이다. 맞벌이가구는 홑벌이가구보다 임금근로자비율이 낮다. 맞벌이가구에서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높은 이유는 농림어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전체 맞벌이의 32.5%) 자영업자가 많은 산업부분에서 맞벌이가 많기 때문이다. 전체 맞벌이가구 중 가구주 연령대별 비율을 살펴보면 40~49세가 35.2%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50~59세 28.8%, 30~39세 18.6%, 60세 이상 15.4%, 15~29세 2.0%이다. 따라서 맞벌이가구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40-50대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할 가능성이 높은 30대 맞벌이가구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편 맞벌이가구의 증가는 기혼취업여성의 취업률 증가에 의한 것으로서 언급되고 있는데, 한국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 특징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e나라지표, 2012). 지난 10년간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세 이상 여성인구 대상)은 49%수준에서 정체된 상황이다[1]. OECD 주요국

가가 1인당 GDP 2만달러에 도달한 시기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15세~64세 여성인구 대상)은 평균 57.4%이다.[2] 2010년 현재 OECD 국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평균은 61.8%이며 한국은 54.5%이다[3] 한국은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서 OECD 32국가 중 하위권에 속하여 여성의 고등교육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저조한 국가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과 출산율은 반비례하는 성격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한국은 OECD국가 중에서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이 둘 다 낮은 국가군으로 분류되고 있다(장지연・부가청, 2003).

이와 같은 통계자료에 기반해 볼 때 지난 10년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체 상태이며, 한국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OECD국가 평균에 비해 낮은 편이고, 특히 고학력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한 독특한 현상을 보이고 있어서 서구의 맞벌이가족 증가와는 매우 다른 특성과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한편 일-가정양립을 주제로 파일럿 인터뷰를 하면서 제보자들에게 자주 듣게 되는 말이 있었다. '애를 봐줄 사람이 가까이 있어야 부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어요,' '저는 날라리 맞벌이에요,' '우리 와이프는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맞벌이라는 생각을 안해요,' '맞벌이라면 '맞'의 의미가 부인이 남편만큼 버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이들에게 맞벌이부부는 정규직이며 전일제로 일하고 벌이가 괜찮은 경우를 뜻한다. 이들이 그리고 있는 맞벌이부부는 위의 통계자료에서 그려지는 이미지와 다르다.

또한 일-가정양립 관련 논문이나 기사에는 '기혼여성노동력의 참여와 맞벌이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일-가족양립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러나 서로 다른 계층의 기혼남녀들은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맞벌이가구는 정말로 증가하고 있는 것인지, 맞벌이부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인지 등은 확실치 않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현실적인 그림이 그려져야 일-가족양립지원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구체적으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유배우 가구 중 현재 노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고 그들의 경제적 여건은 어떠한지, 잠재적 노동진입자는 누구인지, 현재 노동참여자들의 노동경험은 어떠한지, 잠재적 노동진입자의 노동형태는 어떠한지 등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대상의 현황이 파악되어야 적절한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다.

즉, 전일제 정규직 맞벌이부부의 증가를 가정하는 서구식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따라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적 상황의 특수성으로 인해 적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1년 맞벌이가구 통계와 2012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특징에 대한 통계는 한국 맞벌이가족 증가 현상이 서구와 다른 맥락에서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정책 설계가 전형적 맞벌이에 대한 인식에 기반해 있으며 사람들 역시 맞벌이에 대한 전형적 인상을 갖고 있지만 실제 다양한 계층 부부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다르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기혼남녀의 노동경험에 근거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자녀가 있으며 수도권에 거주하는 30, 40대 기혼남녀를 대상[4]으로 생애사적 노동경험

---

1)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02년 49.8%, 2003년 49.0%, 2004년 49.9%, 2005년 50.1%, 2006년 50.3%, 2007년 50.2%, 2008년 50.0%, 2009년 50.0%, 2009년 49.2%, 2010년 49.4%, 2011년 49.7%이다.

2) 한국 통계는 15세 이상 여성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OECD통계는 15세~64세 여성인구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통계치가 다소 낮을 수 있다.

3) 경제활동참가율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다 포함되며, 취업자 산정 기준은 2011년 통계청의 맞벌이부부 산정 기준과 동일하다.

4) 40-50대 맞벌이가구의 비율이 높으나, 50대의 경우 자녀양육의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가정양립지원의 필요성이 높은 30-40대 맞벌이부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과 일의 의미, 자녀양육 여건, 경제적 상황, 원가족의 경험, 맞벌이부부에 대한 정의 등을 심층인터뷰하여 기혼남녀의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을 기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관점, 상식, 주관적 경험과 의미 등 연구대상의 경험세계와 의미세계를 중시하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기혼남녀 경제활동 경험의 의미구성 과정을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30, 40대 기혼남녀의 노동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30, 40대 기혼남녀는 맞벌이부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 Ⅱ. 연구방법

### 1. 연구참여자

<표 1> 연구참여자 특징

| 이름(성별,연령) | 자녀 | 학력 | 주관적 계층 | 가구소득 (연봉,만원) | 주거 | 노동경험 |
|---|---|---|---|---|---|---|
| 정련애(여, 38세) | 7, 3세 | 여상졸 | 하층 | 3,300 | 임대 아파트 | 직업교육+구직중 |
| 박세환(남, 33세) | | 고졸 | 하층 | | | 생산직,계약직 |
| 홍선주(여, 42세) | 11, 10세 | 고졸 | 중하층 | 6,000 | 자가* | 판매직,정규직<br>남편: 서비스업,계약직 |
| 문희정(여, 38세) | 9, 6, 3세 | 여상졸 | 중상층 | 10,000 | 자가 | 새마을금고,정규직<br>남편: 회사원, 정규직 |
| 김경희(여, 42세) | 7, 6, 4세 | 고졸 | 중하층 | 3,000 | 임대 아파트 | 식당,자영업<br>남편:동업 |
| 강우정(여, 33세) | 6, 5세 | 고졸 | 중하층 | 4,500 | 전세 | 취업중단,전업주부<br>남편: 회사원, 정규직 |
| 안정희(여, 44세) | 15, 12세 | 대졸 | 중상층 | 10,000 | 자가 | 취업중단, 시간강사<br>남편: 회사원,정규직 |
| 황광선(남, 46세) | 13, 10세 | 대졸 | 중하층 | 7,500 | 자가* | 빵집,자영업<br>부인:초등교사,정규직 |
| 현나라(여, 32세) | 2세 | 대졸 | 중하층 | 4,500 | 전세 | 사서,정규직<br>남편:회사원,정규직 |
| 김대봉(남, 40세) | 8세 | 대졸 | 중하층 | 7,500 | 전세 | 기술사,정규직 |
| 이윤남(여, 35세) | | 대졸 | 중하층 | | | 사서,정규직 |
| 고경희(여, 40세) | 7, 4세 | 대졸 | 중상층 | 7,000 | 전세 | 취업중단,전업주부<br>남편:회사원, 정규직 |

* 하우스푸어에 해당됨
** 정련애와 박세환, 김대봉과 이윤남은 부부임
*** 주관적 계층 중하층에 속하는 연구참여자 가구소득은 연봉 3000천만원~7500만원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이는 생활표준 차이에 기인한다.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기 전에 8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파일럿 스터디를 하였다. 이 과정에서 연구참여자 선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사항이 정리되었고 연구참여자 선정의 네트워크도 어느 정도 확보되었다. 대략적인 인터뷰가이드도 산출되었다. 정보가 풍부한 사례 선정을 위하여 목적성 있는 표본추출을 하였다. 최대변이 표본추출과 네트워크 표본추출을 이용하여 연구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연령, 성별, 계층, 노동형태, 직종, 자녀연령 등을 고려하였다. 부부간의 인식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저소득층과 중산층 부부를 한 가구씩 포함시켰다.

연구참여자는 서울경기 지역에 거주하고 자녀가 있는 30, 40대 기혼남녀 12명이다. 연구참여자는 연령별로는 30대가 6명 40대가 6명이며, 성별로는 기혼남성이 3명, 기혼여성이 9명이고, 고졸자가 6명이고 대졸자가 6명이다. 전업주부가 2명이며 기혼여성 2명은 시간제로 일하고 있고 나머지 8명은 진일제 취업자이다. 연구참여자 자녀의 연령은 2세에서 15세 사이이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가 3사례이며, 자녀수가 2명인 경우가 7사례이고 자녀수가 3명인 경우가 2사례이다. 연구참여자 심층인터뷰는 2012년 4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실시되었다. 연구참여자가 수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여관찰을 위하여 가정이나 직장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 2. 자료수집 및 분석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진실성을 높이기 위해 심층인터뷰, 참여관찰과 개인적 만남, 반구조화 및 구조화된 질문지 등 세 가지 자료수집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정이 허락하는 한 연구참여자가 가장 편한 요일과 시간대에 연구참여자의 집으로 찾아가거나 직장으로 찾아가 1~2번 개인적 만남을 가졌으며 연구참여자의 가정과 직장에서의 생활을 관찰할 수 있었다. 심층인터뷰는 인터뷰가이드에 따라 별도의 날을 정하여 실시되었으며 보통 1시간30분 가량 소요되었다. 심층인터뷰를 진행하기 전에 연구참여동의서를 제시하고 동의하는 싸인을 받았다. 연구참여동의서는 이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연구에 대한 서면 프리젠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참여동의서에는 연구자가 누구인지,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연구참여자의 비밀보호에 대한 약속, 관찰과 대화 내용의 녹음에 대한 요청, 연구자의 연락처 등이 포함되었다.

인터뷰가이드에는 맞벌이에 대한 인식, 일상생활 및 생애사, 가족과 일의 의미 등 크게 세 가지 주제의 질문이 포함되었다. 맞벌이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는 맞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뭐가 떠오르나요? 어떤 사람들이 맞벌이인가요? 알고 있는 맞벌이부부에 대해 말해주세요, 그 사람들은 왜 맞벌이를 하나요? 맞벌이를 그만두는 사람도 있나요? 본인은 맞벌이인가요? 부모님은 맞벌이인가요? 결혼 후에 맞벌이에 대한 생각이나 경험에 변화가 있나요? 맞벌이가 증가하고 있다는데 실감이 나세요? 등이 포함되었다.

반구조화된 질문지에는 가사분담 방식, 생계부담 방식, 일과 가정생활 시간할애 정도, 여성취업에 대한 견해, 월평균 소득에 대한 평가, 희망하는 소득 수준, 주관적 계층 평가, 생활비지출 상황 등이 포함되었다. 구조화된 질문지에는 주요 성장지, 원가족 사항, 직업스트레스와 몰입도, 근로시간과 형태 등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현재의 정서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9개(잘나가는 자신있는, 편안하고 안정적인, 흥미를 느끼고 시도하는, 벗어나고 싶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스트레스 받는 등)에

대하여 7점 리커트 척도로 표시하게 하였다. 심층인터뷰 내용과 반구조화된 질문지, 구조화된 질문지의 내용은 연구참여자의 이야기를 상호 체크하는 역할을 하였다.

자료의 초기 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현장기록지 작성, 분석 파일 만들기, 인용문헌 파일 만들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인터뷰하면서 메모한 인터뷰노트에 기초하여 현장기록지를 작성하였으며 거기에는 자료수집 과정에서 떠오르는 단상들도 포함되었다. 현장기록지는 인터뷰 당일에 작성하였으며 분석과정의 시작이 되었다. 분석 파일은 인터뷰가이드 파일과 키워드 파일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자료수집이 진행되면서 최초의 인터뷰가이드는 점진적으로 수정되었다. 인터뷰가이드 파일에는 이러한 과정이 기록되었다. 키워드 파일에는 자료를 수집하면서 이 연구의 키워드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과정적으로 정리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의 키워드를 찾고 삭제하고 추가하는 과정은 그 자체로 자료의 해석과정이기도 하였다. 인용문헌 파일은 자료수집 과정에서 연구자가 읽은 관련 문헌 중에서 유용한 부분들을 발췌하여 만들었다. 인용문헌 파일은 논문에 직접 인용되기도 하지만 참고문헌의 내용을 연구 속으로 소화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자료의 실질적인 분석은 코딩, 범주화 주제를 찾는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 Ⅲ. 노동 경험과 의미의 차이

맞벌이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노동경험 및 일의 의미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노동경험과 함께 그들이 생각하는 일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들의 노동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역사적 맥락으로 산업화 이후 노동시장 및 일-가족 문제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60년부터 1970년대 초까지는 농업인구가 다수였으며 일-가족 영역이 미분화한 시기이다. 국가주도적 공업화와 일중심적 사회체제가 재편되기 시작하였으며, 미혼여성 중심의 노동시장과 결혼퇴직제, 광범위한 식모집단이 존재하였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남성 화이트칼라노동자 중심으로 중산층가족이 형성되었다. 경제성장을 통해 남성1인이 가족생계를 부양하고 여성이 가정을 전담하는 중산층핵가족규범이 정착하였다. 한편으로는 그러한 가족유형이 확산되기 시작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층화에 따른 가족유형의 분화가 시작되었다.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말 시기에는 결혼퇴직제 폐지와 모성보호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대졸여성의 취업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저소득층 기혼여성노동자 집단이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혼여성취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였고 맞벌이가족은 문제가족이라는 인식이 상존하였다. 저소득층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일-가족 갈등의 맹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이후 취업여성 중 전문직 비중이 증가하면서(1980년 3.6%, 1990년 7.7%, 2000년 13% 이후 정체) 맞벌이부부담론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 시기의 맞벌이부부는 전문직 부부를 의미하며 ‘이중커리어 가정’으로 명명되고 새로운 부부의 등장으로 간주되었다. 1980년대 결핍의 부호였던 맞벌이부부는 1990년대 중반을 거치면서 계층상의 변동을 수반하여 풍요의 기호로 전환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돌봄의 상품화와 시장담론이 부각되었고 일-가족 영역에서 일중심성 강화 현상이 나타났다(강이수, 2009, 신경아, 2009).

## 1. 노동경험의 차이

<표 2>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노동경험

| 이름(성별,연령) | 현재 노동형태 | 현재 노동시간 | 생애사적 노동경험 |
|---|---|---|---|
| 정련애(여, 38세) | 구직중 아르바이트 | 주당 50시간 | 19세 생계형 생산직 미혼여성노동자로 시작하여 결혼후 현재까지 주로 4대보험이 없는 계약직 노동자, 단기 아르바이트. |
| 박세환(남, 33세) | 계약직 생산직 | 주95시간 | 20세 생계형 서비스업 노동자로 시작하여 결혼 후 현재까지 계약직 서비스업, 계약직 생산직노동자. |
| 홍선주(여, 42세) | 정규직 판매직 | 주45시간 | 20세 생계형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온라인 자영업을 거쳐 현재 판매직노동자. |
| 문희정(여, 38세) | 정규직 사무직 | 주55시간 | 19세 생계형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18년째 동일 직장에서 근무함. |
| 김경희(여, 42세) | 자영업 | 주72시간 | 20세 생계형 서비스직노동자로 시작하여 결혼후 계약직 서비스직 노동자로 일하다가 남편 실직으로 최근 자영업 전환. |
| 강우정(여, 33세) | 없음 | 없음 | 대중퇴, 22세 생계형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혼전임신으로 취업중단하고 결혼하여 전업주부. |
| 안정희(여, 44세) | 시간제 노동자 | 주20시간 | 대졸 후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자영업 10년, 건강악화로 사업중단, 시간제 노동자4년. |
| 황광선(남, 46세) | 퇴직후 자영업 | 주80시간 | 대졸 후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40대초반 개인사업 전환 후 실패. 자영업 전환. 일시적 투잡. |
| 현나라(여, 32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5시간 | 22세 생계형 아르바이트로 시작하여 대학공부 병행. 29세부터 정규직 사무직노동자. |
| 김대봉(남, 40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5시간 | 대졸 후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현재까지. |
| 이윤남(여, 35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0시간 | 대졸 후 사무직노동자로 시작하여 시민단체 근무, 건강문제로 시간제노동자, 현재 전일제 사무직. |
| 고경희(여, 40세) | 없음 | 없음 | 대졸 후 12년간 사무직. 첫아이 두돌 취업중단. |

**저는 일을 안한 적이 없어요(하층 맞벌이)**

1994년에 여상 고3 때 수원 삼성전기에 취직나가서 첫월급 35만원 받고 7~8년 일하고 거의 나가라는 식으로 하도 눈치를 주니까 그만뒀어요. 모은 돈으로 부모님 빚 정리하고 동생 등록금대고 자취방 얻어줬어요. 김밥집 알바하다가 벌어놓은 돈으로 김밥집 인수했다가 다 날리고, 호프집에서 홀서빙 하다가 요리사로 들어온 남편을 만났어요. 그 때는 오후 3시부터 새벽1시까지 10시간씩 일하고 140만원 받았어요. 애가 생겨서 월세살면서 동거했는데 첫애 제왕절개할 때 수술비가 없어서 힘들었어요. 첫애 돌 지나고 어린이집 보내고 다시 호프집 홀서빙을 6개월하다가 짤려서서 골프장 캐디를 1년 했어요. 많이 벌 때 250만원이고 출근은 매일 해도 겨울에는 30만원 벌기도 어려웠어요. 둘째 임신해서 하혈하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둘째는 7개월에 어린이집을 보내고 웅진코웨이 코디로 들어갔어요. 4대보험하고 정규직으로 갔는데 애 둘이 돌아가면서 수두를 앓았서. 어린이집에 못가

는 바람에 그만두게 됐어요. 그러고는 동네 채선당에서 시급4500원 받고 하루에 5시간씩 5일 일하고 주말 야간에 10시간씩 시급4200원 받고 알바했어요. 그렇게 하면 일주일에 20만원 벌어요. 화장품케이스 조립하는 부업도 집에서 해보고(여, 정련애38세)

**저는 돈버는 기계에요(하층 맞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을 벌려고 식당에서 요리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첫 월급을 70만원 받고(2000). 1년하고 군대 갔다가 서울로 올라와서 다시 식당에 들어갔는데 다들 매일 술 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그만두고 호프집 요리사로 들어갔어요. 거기서 와이프를 만났지요. 120만원을 주는데 너무 적어서 연수원 단체급식하는 데로 갔어요. 거기는 150을 주고 출퇴근이 정확해서 좋았어요.근데 애 둘 되니까 그 돈으로 안되니까 3교대 근무하는 공장으로 들어갔어요. 잔업하고 주당 66시간 일하면 210정도 받았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많이 받았는데 공장이 넘어갔어요. 이후로는 1년 동안 10번 정도 일자리를 옮겼어요. 지방까지도 가고. 돈을 받아보면 처음이랑 얘기가 다른 거에요. 한 달에 3일 쉬고 주장 72시간 일했는데 190주는 거에요. 나 자신이 한심해서 실망하고 방황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공장으로 왔어요. 2교대로 하면서 잔업, 야근, 주말특근까지 다 해서 주당 90시간 이상하면 260받아요. 제 인생에 가장 힘든 시기지요. 정말 힘들고요 솔직히 다 팽개쳐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만큼요. 둘째가 저를 잘 못봐서 낯설어하니까 안타까워요. 저는 돈버는 기계에요(남, 박세환33세).

**저도 항상 일을 했고 남편이랑 둘이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사람이에요(중하층 맞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병원 원무과에서 5년 일했어요. 병원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서 그만두고 서울로 와서 사무직 경리하다가 컴퓨터디자인을 배워서 전산용지 디자인 하는 일 했어요. 결혼하고서는 애가 있으니까 집에서 부업했어요. 요지 꼽는 거. 등골 빠지고 돈도 안되고. 그 때 남편이 사진 막 배워서 애 둘인데 120 가지고 왔어요. 돈 아끼려고 애들 아무데도 안보내고 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복온라인대여 사업을 시작했어요. 남편이 사이트에 올릴 사진 찍어주고 애가 한복입고 모델하고. 사업이 잘되어서 월급쟁이보다 나았어요. 5년 그렇게 해서 제일 잘나갈 때 대출 1억 끼어서 집도 사고요. 근데 온라인 사업 경쟁이 심해지고 광고비 오르고 유지가 안되서 팔았어요. 남편일이 벌이가 안되서 고기집 매니저로 업종을 전환하면서 거의 얼굴을 볼 수도 없게 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지금 일하는 가게를 알게 돼서 출퇴근 정확하고 혼자 도매주문 받는 거니까 시작한 거에요.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우리는 이 좋은 집에서 서로 얼굴도 못보고 겨우 잠만 자는 거에요. 사업하던 깜냥으로 산 집인데 월급쟁이 수입으로는 유지가 안되네요. 전세 놓고 다세대로 이사가려고요(여, 홍선주42세).

**원하는 만큼 오래 다녔으면 좋겠어요(중상층 맞벌이)**

고3 졸업하기 전에 직장새마을금고로 들어가서 18년째 일하고 있어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입사했기 때문에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그런 갈등 때문에 방황도 많았고, 입사동

기들은 다 퇴사하고 대학가고 그랬는데 저는 형편이 안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포기했거든요. 결혼하고 아이 생기니까 이직이 염려되면서 말뚝을 박자는 생각을 했어요. 평생직장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거는 아니지만 10년쯤 지나니까 내 적성에 안맞아 보다는 제가 일에 맞춰가서 재미도 생기고. 은행창구업부를 주로 하는데 홍보 대출상담 같은 다른 업무도 멀티로 해야되요. 7시통근버스타고 출근해서 보통 8시경에 퇴근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친정엄마가 같이 사면서 애들을 키워주셨어요. 육아휴직 해서 엄마대신 애키우고 살림하니까 안하다가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실림도 힘들고 돈버는 것도 힘들면 돈벌자 그런 다짐을 했어요(여, 문희정38세).

**무늬만 맞벌이고 내가 주부양자에요(중하층 맞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1989년에 한양스토어에 들어가서 하루 14시간씩 창고물류담당으로 2년 일했어요. 첫월급 17,5000원이요. 진로백화점 오뚜기식품 파견사원으로 5년 일했는데 거기서는 초임이 80만원이었어요. 혼자서 택배사업하려다가 사기당하고 빚지고. 빚갚으려고 경춘휴게소에서 하루 5시간 자면서 휴무없이 5년 동안 일했어요. 월 250정도 벌었으니까 돈이 꽤 되는데 사장한테 빌려줬다가 3천만원 사기당했어요. 나이들고 돈은 없고 회의가 들 즈음 결혼하고 보험하다가 애가 생겨서 국민연금콜센터에 들어갔어요. 월급은 적지만 출퇴근 정확해서 애키우면서 다닐 수 있는 직장이에요. 애 셋 낳으면서 출산휴가 3개월 기본으로 하고 첫째 육아휴직 5개월하고 둘째 육아휴직 9개월하고 셋째 육아휴직 12개월하고. 애가 셋인데 월 140이니까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만뒀어요. 남편이 건축인력사무실에서 술먹고 도박하고 그래서 3년만 해보자고 설득해서 식당냈어요. 동생한테 5천 꾸고 미소금융 1천만원 대출하고 아는 사람이 1천만원 꿔주고 비상금 1천만원으로. 근데 계속 적자에요.

**좀 덜 벌고 덜 쓰고 그렇게 살고 싶어요(중하층 전업주부)**

IMF터지고 대학가서 하루에 알바를 몇 개씩 하면서 버티다가 1년 만에 집어치우고 졸업 포기하고 22살에 게임회사 운영팀에 취직했어요. 인정을 받아서 CJ인터넷으로 갔는데 대기업이 너무 안맞는 거에요. 상하관계 심하고 막 성희롱하고 하대하고 그래서 5개월 하다가 그만뒀어요. 거기서 일할 때는 집에 못들어 가고 휴게실 침대에서 자고 그랬어요. 200 좀 안되게 받았어요. 조금 작은 회사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을 만났어요. 거기가 대기업 협력업체여서 SK커뮤니케이션 들어가서 싸이월드로 출퇴근했어요. 무진장 바쁘고 힘들었지만 재미있었고 인정도 받아서 좋았어요. 2년 하다가 혼전임신을 해가지고 27살에 결혼했어요. 이 계통 일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임산부가 할 수 없는 일어서 그만뒀어요. 저는 애들이 초등학교 고학년 될 때까지는 일할 생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나가봤자 100만원이나 벌까요? 돈 얼마나 번다고, 버는 거에 비해서 너무 에너지 들어가고, 애들도 못돌보고 사는 것도 먹는 것도 형편없어져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맞벌이하기 싫어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어요(여, 강우정33세).

**엄마가 남녀차별이 심해서 뽄때있게 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어요(중상층 부업)**

제가 대학 졸업하고 MBC계약직 사원으로 들어갔어요. 1년 일하다가 결혼하고 IMF터지면서 돈을 더 벌어야겠다 싶어서 코트라 무역과정에 들어가서 이수를 하고 종이봉지 수출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배우고 친구 회사를 동업하면서 본격적으로 무역사업을 시작했어요. 무역업은 시차가 문제여서 아주 힘들었지만 신나고 좋아서 재미있게 일했고 돈도 벌었고 집도 샀어요. 10년을 그렇게 했는데 무리를 해서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뒀어요. 책을 두 권 번역했는데 그게 인연이 되어서 대안학교 교사 제안을 받아서 4년간 일했어요. 이 일은 해야된다는 사회적 책임감으로 했어요. 건강문제로 지금은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쳐요. 출퇴근하던 동안은 맞벌이고 지금은 그냥 부업이에요. 월100만원 정도 벌어요(여, 안정희44세).

**돈벌이가 부실한 가장은 설 자리가 없어요(중하층 자영업)**

대학 졸업하고 5년 동안 기아자동차에 근무했는데 워크아웃 당하고 그럴 때 그만두고 인터파크 공채로 들어갔죠. 입사해서 회사가 성장하면서 저도 빨리 성장했어요. 4년 그렇게 잘 나가면서 일하다가 개인 사업한다고 나와서 하다가 망한 셈이죠. 부인이 초등학교 교사여서 고정 수입이 있으니까 장사를 해야겠다 해서 빵집을 열었는데 만만한 게 아니니까 굉장히 후회하고 있죠. 대출 받아서 집을 샀기 때문에 대출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죠(남, 황광선46세).

**저는 버는 거에 맞춰서 살 수 있어요(중하층 맞벌이)**

전문대 졸업하고 4년제 대학에 편입했는데 엄마 사업이 부도나고 내 이름으로 카드 만든 거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됐어요. 벌어도 다 빚 갚아야 되니까 사실 일할 의욕이 안생겼어요. 휴학하고 3년 아르바이트하다가 27살에 졸업하고 28살에 취직했어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학자금대출이랑 갚아야할 돈이 5천이었어요. 일부는 부모님이 갚아주고 나머지는 제가 10년에 걸쳐서 다 갚았어요. 10년 동안 결혼자금 2천만원 포함해서 5천만원 벌었어요. 지금은 150만원 받아요(여, 현나라32세).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지요(중하층 맞벌이)**

대학 졸업하고 도로설계 쪽 회사에 취업했어요. 자격증이 없을 때라서 야근도 많고 되게 힘들었어요. 빡세게 공부해서 도로 및 공학기술사 자격증 따고 좀 직급이 올라가서 주당 45시간 정도 일해요.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은 아니에요. 50대중반까지는 할 수 있어요. 사무실을 내서 개인 사업을 하고 싶지만 그럴 형편은 안되고(남, 김대봉40세).

**일을 해야 목표가 제시되고 긴장감이 유지되요(중하층 맞벌이)**

대학 졸업하고 어린이문고에 사서로 취직해서 1년 일하다가 문화재단에서 3년 일했어요. 거기서 일하면서 인문학에 대해서 눈을 떴어요. 결혼하고 애낳고 건강이 안좋아져서 3년 쉬다가 다시 사립도서관에 사서로 취직했어요. 제가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해본 적은

없지만 꾸준히 일을 했어요(여, 이윤남35세).

**하고 싶었던 일은 아니었지만 그냥 다녔어요(중상층 경력단절 전업주부)**

대학 졸업하고 전공을 살려서 일본계회사에 취업했어요. 장비제조회사였는데 관리쪽 업무를 맡았어요. 일을 하고는 있었지만 그런 대로 괜찮은 일이긴 했지만 딱히 좋아했던 일이 아니거든요.그래서 다시 일을 하면 돈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하면 좋겠어요. 결혼하고 첫애가 두돌 지나고 돌봐주시던 할머니가 그만두시면서 12년 만에 그만뒀어요. 그즈음에는 연봉 5천이 되었지만 이렇게 정신없이 살면서 할만한 일인가 회의도 들었어요. 내가 뭐하는 짓인가 싶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여, 고경희40세).

<표 3> 연구참여자의 노동형태와 가구부양 유형

| 이름(성별,연령) | 노동형태 | 노동시간 | 가구부양 유형 |
|---|---|---|---|
| 정련애(여, 38세) | 구직중, 알바 | 주50시간 | 1.3부양자가구 |
| 박세환(남, 33세) | 계약직 생산직 | 주95시간 | |
| 홍선주(여, 42세) | 정규직 판매직 | 주45시간 | 2인부양자가구 |
| 문희정(여, 38세) | 정규직 사무직 | 주55시간 | 2인부양자가구 |
| 김경희(여, 42세) | 자영업 | 주72시간 | 2인부양자가구, 실제로 여성가장가구 |
| 강우정(여, 33세) | 없음 | 없음 | 남성1인부양자 가구 |
| 안정희(여, 44세) | 시간강사 | 주20시간 | 1.3부양자, 실제로 남성1인부양자가구 |
| 황광선(남, 46세) | 퇴직후 자영업 | 주80시간 | 1.5부양자가구 |
| 현나라(여, 32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5시간 | 2인부양자가구 |
| 김대봉(남, 40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5시간 | 외견상 2인부양자가구<br>실제로는 남성1인부양자 가구 |
| 이윤남(여, 35세) | 정규직 사무직 | 주40시간 | |
| 고경희(여, 40세) | 없음 | 없음 | 남성1인부양자 가구 |

<표 4> 맞벌이 연구참여자의 가구부양 유형

| 가구부양 유형 | 연구참여자 | 기 타 |
|---|---|---|
| 남성1인부양자 가구 | 강우정, 안정희, 고경희,<br>김대봉&이윤남 부부 | 중하층, 중상층 가구 |
| 여성1인부양자 가구 | 김경희 | 서울토박이 저소득층,<br>남편의 불규칙 노동&실업 +자영업 |
| 1.3인부양자 가구 | 박세환&정련애 부부 | 도시유입 저소득층,<br>친인척의 자녀양육 도움 전무 |
| 1.5인부양자 가구 | 황광선 | 부인 공무원+ 남편 실직후 자영업 |
| 2인부양자 가구 | 홍선주, 문희정, 현나라 | 중하층, 중상층 가구 |

## 2. 일의 의미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노동경험, 일의 의미, 가정생활 경험 및 가족의 의미, 자녀양육 경험, 부부관계, 정체성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연구참여자들에게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분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생애사적 노동경험에 따라 일의 의미 유형이 변화하는 양상도 발견할 수 있었다. 예를들면 문희정씨의 경우 대표적 생계형 노동자로 출발하였지만 노동 경력 18년이 되면서 경력추구형으로 전환하고 있었다. 문희정씨의 경우 3번의 출산휴가와 가족돌봄을 위한 휴가 등이 노동의 의미를 다시금 재정립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정련애씨와 현나라씨는 생계형 노동자로 출발하여 점진적으로 자립추구형으로 전환된 경우인데, 정련애씨의 경우에는 고립된 가정생활 경험이 이를 촉진하였으며 현나라씨의 경우에는 일의 의미를 성찰하게 만드는 직장생활이 이런 계기로 작용하였다.

<표 5> 연구참여자의 노동 의미 유형

| 노동의 의미 유형 | | 대표 사례 |
|---|---|---|
| 생계형 | 평균 수준의 생계보장을 위한 노동을 가정함.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경제 여건이 향상되어 덜할 수 있다면 최선임. 이들에게 생계유지 노동은 많을수록 유리한 절박 노동. 이들에게는 가정생활 결핍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여건이 된다면 자체적 일-가정 균형 추구. | 박세환<br>김경희 |
| 경력추구형 | 노동은 생계유지 수단으로 중요하지만 경력추구의 의미도 중요함. 경력추구는 사회적 성공과 인정, 직업적 위세 등을 포괄함. 노동에는 경력추구 투자가 포함되어서 시간압박이 모든 유형 중에서 가장 큼. 일-가정 균형 추구 인식 부족함. | 문희정 |
| 수익극대화형 | 생계형의 확장판.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경제 여건이 향상되어 덜할 수 있다면 최선임. 이들은 중상층 생활표준을 목표로 하며 자녀양육에 올인 하는 경향 있음. 일-가정 균형을 인식하지만 목표 추구 때문에 불가능하게 여겨짐. | 홍선주<br>황광선 |
| 자립추구형 |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이며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 살기 위한 조건임.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자립은 자기긍정에 중요함. 노동은 경제 여건과 상관없이 지속되어야함. 가정생활에 대한 표준 낮음. | 정련애<br>현나라<br>안정희 |
| 이상주의형 | 남성부양자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상태에서, 노동을 자기만족 및 자기계발의 의미로 해석함. 경력추구형에서 경력추구 성향이 미약한 경우 이상주의형으로 보이기도 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함. | 고경희<br>이윤남 |

**얼마라도 제가 스스로 벌어서 제가 쓰고 싶어요(하층 맞벌이, 자립추구형)**

어려서부터 항상 일을 해서 그런지, 처음에는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일을 시작하면 일 자체에 집중해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하면서 무리를 하는 편이에요. 책임감이 강하기도 한데, 일하는 모습이 저한테 더 맞다는 생각도 들고, 일 안하고 있으면 좀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집에 있으면 답답하고 멍해지고 우울해지고. 남편 말대로 저는 일하는 체질 같아요. 집에서 살림할 성격은 아닌 것 같고 살림도 잘 못하고요. 같은 일도 나가서

하면 되게 잘해요. 저는 남편이 생활비를 넉넉하게 번다고 해도 일하고 싶어요, 얼마라도 제가 스스로 벌어서 제가 쓰고 싶어요(여, 정련애38세).

**다른 생각할 것 없이 월급 받은 만큼 일해주면 되요(중하층 맞벌이, 수익극대화형)**

애들은 저처럼 안살면 좋겠어요. 내가 안벌어도 될만큼 남편이 잘 벌거나 넉넉하면 일 안하고 싶어요. 현실적으로 할 수 없이 일을 하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정이고 애들 관리하는 거에요. 아이들 키우다보니까 내가 월급을 어느 정도 받으면 어떤 일을 하든지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해주면 되는 거에요. 나는 부모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없고 하고 싶은 일 그런 거 다 할 수 없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여, 홍선주42세).

**직장생활이 만족스럽고 전문직으로도 가고 싶어요(중상층 맞벌이, 경력추구형)**

육아보다는 직장생활하는 거에 만족을 더 많이 느끼기는 해요. 저는 경제적으로 넉넉해도 일하고 싶어요. 로또가 당첨되면 '아, 이제는 정말 맘 편하게 회사 다니겠다' 싶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회사에 눈치가 보이고 회사는 자꾸 새로운 업무 능력을 추가로 요구하고 젊은 애들만큼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지만 사람 상대하는 지금 일이 의외로 재미있어요. 여태까지 밥벌이했으니 좀 더 공부해서 금융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지금 공부하면서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여, 문희정38세).

**살려고 일하는 거에요(중하층 맞벌이, 생계형)**

살려고 일하는 거고 가정생활 유지하려니 일하는 거죠. 남편이 잘 번다면 일 안하고 애들 키우면서 다양한 체험도 하게 해주고 애들 뒷바라지를 잘 해주고 싶어요. 제 인생에서는 애들이 중요해요(여, 김경희42세).

**돈벌이가 아니라 꿈을 이루고 싶어요(중하층 전업주부, 이상주의형)**

애들이 조금 크는 동안 일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이 낳기 전에는 나의 사회적 성공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아이를 낳으니까 애가 신기하고 아이가 사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제 이름으로 책을 써서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여, 강우정33세)

**돈을 벌면서 자립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중상층 부업, 자립추구형)**

저는 돈 버는 일이 되게 좋아요. 돈이 많아도 일을 하고 싶어요. 돈을 버는 게 기분이 좋아요. 내가 쓸 돈을 내가 번다는 게 전 항상 좋았어요. 자립한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어른인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살 거는 내가 직접 해결할 수 있다 그런 거. 뭔가를 살 때 내가 그럴 주제가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돈쓰는 일에 서툴러요. 저는 돈을 벌면서 자립한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서 늙어도 그래야 된다가 중요해요(여, 안정희44세).

**돈벌이 못하는 가장은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죠(중하층 자영업, 생계형)**

현재와 미래가 불안하니까 가능하면 둘이 버는 게 좋고 벌 수 있을 때 번다 그런 거죠.

저는 결혼할 때부터 당연히 맞벌이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부인이 힘들다고 그만두고 싶다고 했을 때 확실한 직업이니까 열심히 다니라고 했어요. 지난 몇 년은 전혀 쉴 틈이 없는 생활이어서 몸도 힘들도 경제도 힘들고 정말 지친 것 같아요(남, 황광선,46세).

**일 안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상상이 안되요(중하층 맞벌이, 자립추구형)**

사실 돈벌어야되는 상황이고 빚이 많아서 닥친 상황에 아등바등 살 수도 있었는데 나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돈벌이 직장이 아니라 생각거리를 주는 직장이어서 애가 생겨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지는 않아요. 친정엄마가 가장이었는데 결혼해도 일을 해야된다고 했어요. 회사다니면 힘든 게 있겠지만 살면서 좋고 싫고 나쁘고 슬프고 기쁜 거를 좀 다양하게 경험하면 좋겠다고 그랬어요. 집안에서만 말고. 어릴 적부터 얘기했어요(여, 현나라32세).

**자극과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 일이 필요해요(중하층 맞벌이, 이상주의형)**

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으면 스스로 도태된다는 불안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든 일은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게 만들어서 약간 자극을 주지요. 그런 목표가 없으니까 정말로 뭘 하든 다 취미생활 수준에 그치고, 목표가 생기지 않는 게 불안했어요. 그렇지만 개인시간도 충분해야 되기 때문에 빡센 직장을 원하지는 않아요. 저한테는 돈을 버는 일보다는 일의 가치가 더 비중이 커요(여, 이윤남35세).

**언제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중상층 전업주부, 이상주의형)**

언제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까. 찾아서 잘 할 수 있을까. 열정을 쏟아서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어요. 오래 전부터 그랬어요. 직장에 다닐 때도 직장일이 별로 마음에 안들었고 그 일 이외의 것을 계속 찾았어요. 제 주변에는 돈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기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기만족으로 하는 거 같아요. 저도 자기만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되면 더 좋구요(여, 고경희40세).

# Ⅳ.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

## 1.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

앞서 논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맞벌이부부모델이란 부부 모두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로서, 이들은 직업몰입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어서 일중심 생활패턴으로 가고 있다. 이러한 맞벌이부부모델은 일-가정 갈등 심화는 출산지연, 취업중단, 출산중단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맞벌이부부에게는 경제적 자원에 비해 현격히 부족한 시간자원문제를 어떤 방식의 제도적 장치로 보완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 임금노동 몰입 및 헌신을 중심으로 연구참여자들의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표는 ‘부부 모두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을 하는 경우를 맞벌이부부라고 할 수 있다’와 ‘맞벌이부부는 임금노동에 대한 몰입 및 헌신이 높은 사람들이다’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이다.

<표 6>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

| 이름(성별,연령) | 주관적 계층 | 노동경험 | 전일제 정규직 임금노동 | 임금노동 몰입 및 헌신 |
|---|---|---|---|---|
| 정련애(여, 38세) | 하층 | 직업교육+구직중 | X | O |
| 박세환(남, 33세) | 하층 | 생산직,계약직 | X | O |
| 홍선주(여, 42세) | 중하층 | 판매직,정규직<br>남편: 서비스업,계약직 | X | X |
| 문희정(여, 38세) | 중상층 | 새마을금고,정규직<br>남편: 회사원, 정규직 | O | O |
| 김경희(여, 42세) | 중하층 | 식당,자영업<br>남편:동업 | X | X |
| 강우정(여, 33세) | 중하층 | 취업중단,전업주부<br>남편: 회사원, 정규직 | X | X |
| 안정희(여, 44세) | 중상층 | 취업중단, 시간강사<br>남편: 회사원,정규직 | O | O |
| 황광선(남, 46세) | 중하층 | 빵집,자영업<br>부인:초등교사,정규직 | X | O |
| 현나라(여, 32세) | 중하층 | 사서,정규직<br>남편:회사원,정규직 | O | O |
| 김대봉(남, 40세) | 중하층 | 기술사,정규직 | O | O |
| 이윤남(여, 35세) | 중하층 | 사서,정규직 | X | O |
| 고경희(여, 40세) | 중상층 | 취업중단,전업주부<br>남편:회사원, 정규직 | X | O |

**지금도 맞벌이지만, 제대로 맞벌이하고 싶어요**

근데 ‘둘 다 제대로 일하는 부부’는 부모님이 가까이 살아서 애를 봐주거나, 부인이 남편보다 좀 더 버는 실질적인 가장인 경우가 제 주변에서는 많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여자가 제대로 일하기 어려워요. 애 때문에 못하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고, 맞벌이하면 경제적으로는 나아지죠. 편의점 주말 야간 알바라도 해서 몇 십만원이라도 벌 때하고 그것도 못할 때는 차이가 많아요. 요새는 물가가 올라서 이중으로 마이너스인 기분이에요. 전산회계 이런 거를 배워가지고 사무직 경리 같은 거를 하는 좀 괜찮은 직장을 찾고 싶어요(여, 정애련38세, 주관적 하층).

**혼자 벌어서는 입에 풀칠하기 어려워요**

주당 100시간 일해도 제가 벌 수 있는 돈은 250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공장에서는 젊은애들 빼고는 다 그렇게 일해요. 부인이 얼마든 벌면 빚은 안지죠. 사실 몇 만원도

아쉬워요. 남자 혼자 벌어서 어떻게 먹고 사냐 그래요. 거의 다 맞벌이 해요. 지금 생활자금 대출을 750만원까지 했는데 저축은행 이자가 30%에요. 이자 50만원 갚으려면 12시간씩 열흘 일해야 되요. 둘이 벌어서 400정도가 되면 먹고 살만 하겠어요(남, 박세환33세, 주관적 하층).

**전일제로 생활비를 벌거나 자기꿈을 쫓거나 해야 맞벌이 같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생활비 벌려고 출퇴근하면서 직장인처럼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남편만큼 돈을 제대로 벌든가 아니면 자기 꿈을 위해서 그만큼 일하거나 그러면 맞벌이 같아요. 내가 버는 것이 생계에 영향을 미칠 정도여서 그만둘 수 없으면 맞벌이지요. 저는 돈도 벌어야 되지만, 직장 이 좋아서 애 때문에 힘들어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여, 현나라32세, 주관적 중하층).

**부인이 전일제 직장을 다녀야 맞벌이고 저는 부업이에요**

부인이 정시에 출퇴근하는 직장을 다녀야 맞벌이라고 생각해요. '맞'자의 의미는 남편만큼 버는 거를 의미하니까. 저는 부업이죠. 제 친구들은 대부분 20년 경력 이상의 맞벌이에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맞벌이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 부업하는 엄마들이 진짜로 많아져요. 마트 캐셔, 과외, 카운터일,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애가 초등 고학년이 돼서 가정에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 부업을 시작해요(여, 안정희44세, 주관적 중상층).

**일을 하면 얼마를 하든 무조건 맞벌이에요**

결혼 전에는 정규직 전일제 근무자가 맞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어서 얼마를 일하든 얼마를 벌든 일을 갖고 있으면 맞벌이 같아요. 근데 제 친구, 동료, 친척들 중에는 결혼이나 임신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애키우면서도 계속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애키우다가 그만둔 사람은 없고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는 없어요(여, 고경희40세, 주관적 중상층).

**경제활동을 하면 맞벌이, 제가 주로 적게 버니까**

맞벌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부가 둘 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나요. 많이 벌고 적게 벌고 파트타임 이런 거는 상관없이 경제활동을 하면 맞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주로 그렇게 적게 버는 쪽이기 때문에요(여, 이윤남35세, 주관적 중하층).

**메인+서브 개념이면 맞벌이 아니다**

집사람이 전일제로 일하지만 저는 맞벌이라고 생각안해요. 부부가 급여 차이가 안나고 돈에 포커스가 있는 부부가 맞벌이죠, 맞벌이는 일단 금전적인 문제에요. 우리 와이프는 언제든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집사람이 얼마 버는지 몰라요. 관심도 없고. 맞벌이라면 최소한 알겠죠. 메인과 서브의 개념으로는 맞벌이가 아니라는 거지요(남, 김대봉40세, 주관적 중하층).

## 2. 맞벌이부부 증가에 대한 체감도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들 하는데 실감이 나세요?’에 대한 연구참여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초기양육기 자녀가 있는 전일제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자녀가 하나일 경우 전일제 맞벌이를 유지하거나 중단했다가 재취업 하는 경우가 있고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당분간 전업주부로 남을 확률이 높아진다. 그러나 중상층 연구참여자 주변에만 소수 존재하는 중상층 맞벌이 중에서 자기실현 및 경력추구형에서는 초기양육기 자녀로 인한 취업 중단이 많지 않았다. 이들은 친인척의 전폭적인 도움을 받거나 월150만원 전후의 입주가정부 및 양육담당 가정부를 고용하고 있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면서 파트타임 재취업을 시작하는 엄마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상층 및 중하층 연구참여자와 그 주변 지인들의 사교육비 현황은 초등 저학년 2인자녀 기준 100만원 전후였으며 최고 150만원에 이르렀다. 연구참여자를 통해 파악된 재취업 일자리는 주유소 혹은 은행 점심 해주기, 개인병원 카운터 업무, 콜센터,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마트 캐셔, 과외, 다단계 암웨이 등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재취업은 경제적인 이유로 시작되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체감되는 양상에 상당히 차이가 있다. 신도시 구도심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년 한반에 기존 맞벌이를 포함한 재취업 엄마가 반 정도를 차지하는 반면, 신도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는 동일 경우 재취업 엄마가 1~2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연구참여자들이 주변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전일제 정규직 맞벌이부부의 증가가 아니라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년에 이른 주부들의 생계형 재취업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진짜 맞벌이는 1/3, 메인+서브 부부는 1/3, 나머지 혼자 벌기**

제 주변에는 맞벌이가 많죠. 저는 주변에서 남편이 충분히 버는데도 부인이 맞벌이 하는 거 못봤어요. 주변에 기업체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연봉 8천에서 1억 정도이면 부인이 안벌어도 된다고 느낄 거 같아요. 각자 연봉 5천 정도되는 맞벌이가 1/3, 부인이 직장을 그만뒀다가 서브로 돌아오는 경우 1/3, 전업주부로 돌아서는 경우가1/3인 것 같아요. 애가 하나면 와이프가 재취업해서 서브로 돌아오고 애가 둘이상이면 대부분 전업주부로 가고요. 근데 재취업하면은 실질적인 의미의 맞벌이는 안되는 거죠(남, 김대봉40세, 주관적 중하층).

**맞벌이는 많지 않고, 애들 크면서 재취업하는 엄마는 늘어요**

맞벌이가 늘고 있다는 느낌은 안들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는 엄마들은 늘어요. 우리애가 1학년 일 때는 일하는 엄마가 1/3이었는데 2학년 되니까 절반이상이에요. 주유소에 점심해주는 엄마, 간호사하다가 중단했다가 동네병원에 재취업하거나, 콜센터에 재취업하거나. 먹고 살만한데 부인이 일 자체가 좋고 의미있어서 경력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은 텔레비전에나 나와요. 주변에는 없어요(여, 이윤남35세, 주관적 중하층).

**맞벌이는 대체로 적고, 재취업 엄마도 지역에 따라 다르고**

직장이 있는 신도시 아파트단지에서 잘사는 동네에는 맞벌이가 거의 없어요. 초등학교 한 반에 1~2명 꼴이래요. 신도시에서도 좀 오래된 동네에는 애들 좀 크고 파트타임 일하는 엄마들이 좀 되고요. 저는 거의 맞벌이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어요(여, 현나라32세, 주관적 중하층).

**전일제 맞벌이는 보통이고 부업하려는 엄마는 많고**

제가 생각하는 전일제 맞벌이는 생각만큼 증가하는 것 같지 않고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갈수록 엄마들이 부업을 진짜로 많이 하세요. 마트 캐셔, 과외, 텔레마케팅, 보험설계사, 카운터 업무 같은 거. 애들이 크면서 가정에 적자가 나는 시점부터 일하는 거 같아요(여, 안정희44세, 주관적 중상층).

## Ⅴ. 결과분석의 함의

앞서의 분석을 중심으로 분석결과의 함의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맞벌이부부모델의 수정이 필요하다.

문제제기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논의되는 가족정책, 특히 일-가정양립지원정책 논의의 전제인 맞벌이부부란 부부 모두 정규직의 전일제노동에 종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범주를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정해 본다면 여성의 노동권과 모성권 확보를 위한 논의의 흐름에서 남녀 모두 평등하게 노동권과 부모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 전개의 전환에 따라 일중심적 사회를 어떻게 일과 가정이 양립되는 사회로 전환할 것인가를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개입과 방법에 관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적 논리 이외에도 법에 근거한 정책의 주요 대상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맞벌이부부(가족)을 정규직 전일제 종사자로 한정하여 규정하게 끔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사회의 맞벌이가족(부부)의 실체는 앞서의 전제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먼저 앞서 통계자료에서 보여주는 맞벌이가구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맞벌이가구의 가구주는 홑벌이가구보다 임근근로자인 경우가 더 적으며 대부분 자영업이 많이 분포한 산업군에서 비정규직, 시간제 등의 다양한 노동형태로 일하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앞서 연구참여자의 노동경험을 통해 볼 때, 더 많은 경우가 비정규직의 시간제 노동이나 아르바이트 등의 형태로 일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 두사람이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운 주관적 하층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이들은 본인들의 노동경험에 기반하여 어떤 형태나 유형의 일이라도 부부 두사람이 함께 일을 하는 것은 모두 맞벌이라고 인식하고 있어서 주관적 하층의 맞벌이 인식이 실제 통계자료의 특성과 일맥 상통함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결과는 곧 현재 한국사회의 부부가 함께 어떤 종류의 일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유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일을 해야만 하는, 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하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어느 정도라도 생계유지

가 가능한 경우 자녀양육의 부담 때문에 일을 그만둠에 따라 전형적으로 이상화하는 맞벌이부부는 실제적으로는 많지 않음을, 특히 30대 자녀양육기에는 더욱 그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족의 모델 수정이 필요하다.

둘째, 맞벌이부부 증가의 실제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재취업이다.

앞서의 분석결과, 그리고 연령대별 맞벌이가구의 비율을 토대로 볼 때, 현재 맞벌이가족이 증가한다는 담론의 실제적 의미는 전일제 정규직 맞벌이가족의 증가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자녀의 초기양육이 어느 정도 끝난 중장년기가족의 기혼여성 취업이 시간제 일자리를 중심으로 증가한 것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그만 둔 많은 전업주부들이 자녀교육기의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다시금 노동시장에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따라 어떤 유형의 일자리라도 감수하고 경제적 이유로 일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양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가족의 특성으로 인해 자녀양육기에는 기혼여성이 일을 그만두었다가 교육비 부담이 큰 중장년기에는 다시금 노동시장으로 유입되는 여성의 생애사적 노동경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셋째, 현실에 입각한 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앞서의 논의를 통해 일가정양립에 관한 논의와 지원은 이러한 맞벌이가족의 현실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재검토되고 수정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맞벌이부부의 전형적 모습인 전일제 정규직 임금근로자부부의 경우에도 현재 한국사회의 근로여건이나 직장문화 속에서 출산휴가 이외에 육아휴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과 정책적 개입은 한편으로 보다 강도좋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자녀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은 보다 집중적으로 일하는 기혼여성,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일하는 엄마나 부모에게 초점을 두어 지원하는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부부 두사람이 함께 어떤 유형의 일이라도 해야만 하는, 기존의 논의와 정책지원에서 제외되거나 다른 논리로 접근되었던 계층의 맞벌이부부의 여건 개선을 위한 다른 차원의 노력과 접근이 필요하다. 즉 이들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준다 하더라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일을 우선해야하는, 생계유지가 어느정도 가능할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 확보가 우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노동유형과 특성에 맞는 자녀돌봄 지원의 정책적 디자인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자녀돌봄의 문제를 영유아기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문제, 그리고 사교육비의 부담 문제은 다른 차원의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은 생애주기에 따라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와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관통하는 총체적 상황 파악과 이들의 다양한 상황적 특성을 반영하는 세부단위의 세심한 정책 디자인이 함께 맞물려가기 위한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히 시급하다.

## 참고문헌

강이수(2009). 노동시장의 변화와 일-가족관계. <일 가족 젠더> 한울아카데미.
김소영・김선미・이기영(2011). 맞벌이가정의 일가정양립의 양상과 조화로운 양립의 가능성 탐색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5(1). pp93-116.
신경아(2009) 산업화 이후 일-가족문제의 담론적 지형과 변화. <일 가족 젠더> 한울아카데미.
장미나・한경혜(2011). 어린자녀를 둔 맞벌이부부들의 일상생활경험: 경험표집법(ESM)으로 살펴본 남녀의 일상생활 구성과 정서경험 비교. 가족과 문화. 23(1). pp1-39.
장지연 부가청(2003). '숨겨진 선택: 기혼여성노동자의 일과 자녀양육' <여성연구> 제65호.
한경혜・장미나(2009). 기혼남녀근로자의 일가족 균형과 관련요인: 남녀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21(1). pp85-115.
한경혜・장미나(2011). 일상재구성법을 통해 살펴 본 영, 유아자녀를 둔 기혼 여성들의 행복감. 한국가족복지학. 16(4). pp5-27.
Corrine Glesne, 안혜준 역(2008) 질적 연구자 되기, 아카데미프레스.

토 론

#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

김 승 희(광주대학교 교수)

##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첫째, 맞벌이부부에 대한 전형적 인식이 무엇이며, 이러한 인식에 근거한 정책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우선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서구식 모델이 한국 상황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여러 부작용을 언급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둘째, 맞벌이가족에 대한 기존 정책이 맞벌이부부에 대한 전형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 문제인지, 맞벌이부부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인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형적 인식이 문제라면 연구 목적이 맞벌이부부에 대한 다양한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되어야 하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면 다양한 계층의 맞벌이부부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셋째,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이 왜 맞벌이가족에 대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언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하지만 의식이 존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에 따라 실제 삶의 양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인식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식의 논리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넷째, 연구 목적의 수정이 요구됩니다. 기혼남녀의 노동경험에 근거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이라는 연구 목적은 '경험'과 '인식' 모두를 살펴보게 함으로써 사실상 두 가지의 연구 목적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연구 방법의 선택에도 혼선을 초래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한 가지 목적을 표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Ⅱ. 연구 방법

첫째,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연구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면 포스트모더니즘에 근거한 담화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며, 기혼남녀의 노동경험은 현상학적 연구로 접근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분석을 하고자 한다면, 질적 사례연구 방법에서 행해지는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질적 사례연구 분석 방법에 따라 '시례 내 분석'과 '사

례 간 분석’을 시행하여 사례를 세세하게 묘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동경험에 근거한 맞벌이부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노동경험을 근무 연수, 직종, 고용형태 등에 따라 크게 몇 개의 범주로 나누고, 각각의 범주에서 나타나는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타당합니다.